

# 중국망명 전 이상정의 삶과 문화투쟁

박 용 찬\*

- I. 머리말
- II. 자필이력서와 일본유학 시기 고증
- III. 교육, 미술, 문학을 통한 문화투쟁
- IV. 용진단 결성과 사회투쟁
- V. 맺음말

## 국문초록

李相定은 문화투쟁과 무장투쟁을 넘나든 특이한 경력을 가진 독립운동가이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 대한 접근은 문학, 미술, 독립운동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정은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 일본, 중국 등을 오가며 표박의 삶을 살았다. 중국 망명 전이든 후든 그는 억압과 구속에 맞서 싸운 자유인이었다. 자유의 정신은 중국망명 전에는 교육과 문학과 미술을 통한 문화투쟁으로, 중국망명 후에는 항일전선의 전위를 담당하는 무장투쟁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새로 발굴된 몇몇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망명 전 이상정의 삶을 복원하고 문화투쟁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유학시절의 행적과 귀국 후 전전한 학교들을 그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pyc245@knu.ac.kr

의 자필이력서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 복원하였다. 백부 소남 이일우 家에서 시서화와 한학을 익힌 이상정은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화와 역사, 지리에 관한 소양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획득된 문화자본과 상징자본은 이후 이상정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고는 문화적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이상정의 중국망명 전의 삶을 교육, 미술, 문학 분야로 정리하였다. 교육을 통해서만 민족계몽운동에 투신하였고, 미술은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로 개인전 출품이나 미술연구소 ‘벽동사’의 창설로 나타났다. 시조 창작이나 수필적 글쓰기로 나타난 문학작품은 자신의 삶의 행로와 깊은 연관을 맺은 것이었다.

한편 문화적 민족주의의 한계를 깨달은 이상정은 1925년 사회주의 청년 단체인 용진단의 창단을 주도하다가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이는 식민지 치하에서의 문화투쟁이 한계에 부딪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문화투쟁을 넘어서고자 하는 지점에 독립운동가 이상정이 존재하며, 이는 곧 국외에서의 무장투쟁으로 연결되었다.

#### ◆ 주제어

이상정, 문화투쟁, 무장투쟁, 문화적 민족주의, 문화자본, 교육운동, 미술, 서양화가, 동포애, 시조, 사회주의 청년운동, 독립운동가

## I. 머리말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냐? 문화는 산업과 문물의 발달한 총적(總積)을 가리키는 명사니, 경제 약탈의 제도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전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문화 발전의 능력이 있으랴? 쇠망한 인도족, 유태족도 문화가 있다. 하지만 일(一)은 금전(金錢)의 역(力)으로, 그 조선(祖先)의 종교적 유업을 계속함이며, 일(一)은 그 토지의 광(廣)과 인구의 중(衆)으로 상고(上古)의 자유발달한 여택(餘澤)을 보수(保守)함이니, 어디 문맹(蚊蟲) 같이 시랑(豺狼)같이 인혈(人血)을 빨다가 골수까지 깨무는 강도 일본의 입에 물린 조선 같은 데서 문화를 발전 혹 보수(保守)한 전례가 있더냐? 검열·압수, 모든 압박 중에 기개(幾個) 신문·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의 목탁(木鐸)으로 자명(自鳴)하며, 강도의 비위(脾胃)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이상의 이유에 거(據)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내정독립·자치·참정권 등 논자)나 강도 정치 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主義)를 가진 자(문화운동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sup>1)</sup>

위 글은 단재 신채호가 1923년 1월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의 일부이다. 이 글은 1919년 11월 만주 吉林省에서 결성된 무장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의 요청에 의해 쓰여진 의열단 선언서이다. 신채호의 명제를 수용하면 일제강도 정치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문화운동은 부정되고, 노예 문화로 치부되고 만다. 일제치하에서 이루어진 문화운동이 노예문화인가 아닌가. 이후의 문학사적 성취는 이것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룰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서 신채호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노선을 외교론, 준비론, 민중직접혁명론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상해 臨政에 참여하였다가 反임정 노선에 선 바 있는 신채호는 이 글에서 독립운동의 방책으로 외교론, 준비론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할 것을 내세운다. 특히 실력양성론으로 대표되는 준비론과, 민중직접혁명론과 연관되는 무장투쟁론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오랜 시

1)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개정판 단재신채호전집』 하, 형설출판사, 1977, 38쪽.

간 각축하였던 독립운동 방책이었다. 3·1운동 이후 발흥되기 시작한 ‘문화운동’ 또한 교육의 진흥, 상공업의 발전, 민족의식의 자각 내지 계몽 등을 내세우는 점진적 실력양성운동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의 욕망이 차단된 식민지 상황에서 문화운동은 당시의 지사나 지식인들에게 민족계몽의 유효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언론, 문학, 미술 등의 제 분야에 지식인들이 몰려든 것이 그들의 가진 재능이나 단순한 취향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운동 직후 국내·외의 신식학교를 졸업한 지식인들이 교사, 신문기자, 문학자, 화가, 음악가 등이 되는 것은 다반사였다. 庚戌國恥와 3·1운동이란 큰 역사적 변혁을 겪으면서 이들은 사회, 역사적 현실을 조망할 수 있는 개인적 주체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11일 上海에서 共和政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가 해외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문인들도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김윤식은 문인 자신이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비극적 주인공이 된 사례로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주요한, 신채호, 이육사, 윤동주, 김학철 등을 들었다.<sup>2)</sup>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국권회복 염원이나 의지는 많이 다룬 바 있지만 작가 개인의 독립운동 투신이나 그것과 관련된 문자행위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소략하였다. 백범 김구가 쓴 『백범일지』나 김사량의 『노마만리』, 김태준의 「연안행」 등의 일기, 수기 같은 수필류 글들이 근대문학 연구의 주변부로 밀려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李相定の 『飄泊記』<sup>3)</sup>도 그러한 경우의 하나이다.

2)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과 문인들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1쪽.

3) 『표박기』는 1950년 청구출판사에서 『中國遊記』란 이름으로 『표박기』의 전체 원고는 아니지만 그 내용 중 일부가 출판된 적이 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에 『표박기』의 육필 원고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이 유고는 2023년 대구 달서구 소재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에서 『중국 국민혁명군 이상정 장군의 역주 표박기』(이상규 역주)란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표박기』를 통해 1925년에서 1930년까지 망명 초기 중국 내 이상정 장군의 행적을 읽어낼 수 있다.

『표박기』의 저자 이상정은 1920년대 초·중반 국내에서 교육, 미술, 문학 등의 제 분야에서 문화운동에 전념하다가 중국으로 망명, 무장투쟁에 가담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중국을 오고 간 독립운동가의 글쓰기를 상정할 때, 이육사, 이상정, 김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육사는 국내 문단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 쓰기와 독립운동을 병행하였으며, 김구는 국내문단과 관계없이 망명지 중국에서 자전적 기록이라 할 수 있는 『백범일지』를 남겼다. 이상정은 이들의 중간 항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정은 국내에서 문학과 미술에 관여하다 중국으로 망명하여 『표박기』란 기행수필집을 남겼다. 독립운동사나 근현대문학사에서 이상정은 김구나 이육사에 비해 크게 조명받지 못하였다. 그 원인으로 대부분의 삶을 중국 국민혁명군 막료로서 항일투쟁에 나섰다는 점, 그가 남긴 『표박기』가 온전하게 보관되지 못한 필사된 유고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이상정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문학자, 서양화가,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 백기만이 추모문집의 성격이 강한 『중국유기』<sup>4)</sup>를 편찬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 세대만에 이상정의 장남인 송남 이중희 교수의 회갑기념논문집에 신동근의 「이상정장군고」가 실리는 정도였다.<sup>5)</sup>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립운동가,<sup>6)</sup> 서양화가,<sup>7)</sup> 현대시조작가<sup>8)</sup>로서 이상정을 해명해 보려는 연구자들의 개별적 접근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벽동사’를 창설

4) 이상정장군 유고, 『중국유기』, 청구출판사, 1950.

5) 신동근, 「청남이상정장군고」, 『송남이중희교수 회갑기념 수필및학술논문선집』, 1979.

6) 최기영, 「이상정(1897-1947)의 재중(在中) 독립운동」, 『역사학보』 200, 2008.

7) 김태곤, 「대구 서양화단의 서양화 수용과 전개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4. 이중희, 『대구미술이 한국미술이다』, 동아문화사, 2019.

이상규, 『이상정과 이여성』, 민속원, 2021.

이인숙, 「서양화가이자 전각가인 미술가 청남 이상정 연구」, 『영남학』 83, 2022.

8) 이상규, 「대구 최초의 현대 시조작가 청남 이상정」(1), (2), 『대구문학』 141, 142, 대구문인협회, 2019.

한 서양화가로서의 이상정을 좀 더 주목해 보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sup>9)</sup> 각론별로 이루어진 이들의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정이 이룩한 성취를 각 분야별로 자리매김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정의 삶의 행적을 아우르는 기본적인 연보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관계로 도출해 낸 연구의 결과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기억과 풍문에 의해 기록된 이상정의 행적을 사실과 검증을 통해 접근해 보자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굴곡진 이상정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전반부와 후반부, 즉 중국 망명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중국 망명 전의 이상정은 교원, 서양화가, 시조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중국 망명 후의 이상정은 중국 내 무장투쟁 전선에 가담하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독립운동의 와중에 그는 수필기행집에 가까운 『표박기』와 篆刻과 관련된 印譜 등을 남겼다. 교원, 서양화가, 시조시인으로서의 전반기 삶이 문화를 통한 민족의식 양양 내지 계몽의 차원에 머물렀다면, 독립운동가로서의 후반기 삶은 억압의 주체에 대한 저항적 의지가 실천적 행위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상정의 성장과정, 일본유학시절, 귀국 후 전전한 교원생활, 서양화가로서의 제 활동, 용진단 결성을 통한 사회투쟁까지를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삶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마다 표출된 제 행적과 실천적 행위들의 결과물들을 적절한 잣대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는 교육, 미술, 문학 분야에 전념한 이상정의 중국망명 전 삶을 문화투쟁이란 관점으로 묶어내고자 한다. 문화투쟁은 속칭 ‘문화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화적 민족주의가 아닌 문화투쟁이란 용어를 쓴 것은 후반기 삶의 주류인 무장투쟁과 상대되기도 하고 ‘투쟁’이 주체의 실천적 의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그의 삶과 관련된 정확한 연보 작성 및 전기적 사실의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최근에

9) 2023년 12월 14일 대구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에서 이상정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백동사 100주년 이상정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발굴된 이상정 본인의 자필이력서를 바탕으로 당시의 신문 기사 및 몇몇 서간 자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 II. 자필이력서와 일본유학 시기 고증

중국망명 전 이상정은 주로 교육, 미술, 문학, 즉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이상정은 圖畫 교원, 서양화가, 시조시인 이외에 미술연구소 碧瞳社 창설과 사회운동단체 勇進團 결성을 주도한 실천가였다. 교육과 실천의 와중에 “詩書畫”<sup>10)</sup>를 통한 이러한 제 활동은 문화를 통한 민족계몽 내지 항일의식의 제고로 이어지면서 문화투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상정에 관한 삶의 이력과 행적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

이상정의 본관은 慶州, 雅號로 靑南, 晴嵐, 汕隱, 혹은 聽琴山房主人을 썼다. 이상정은 1894년 6월 10일 李時雨와 金愼子(법명은 華秀) 사이의 장자로 태어났으며, 중국 망명 중에는 가명으로 李然皓, 李直文, 李祥俠 등을 쓰기도 했다. 아우로 相和, 相伯, 相昨가 있다. 그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나 遺稿 『중국유기』(청구출판사, 1950) 등에 소개된 「장군의 약력」 등이 있다. 이후 후대 연구자들이 간략하게 정리한 생애나 연보<sup>11)</sup> 등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세부적인 행적은 자료에 근거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출생연도나 1910년대 일본 유학시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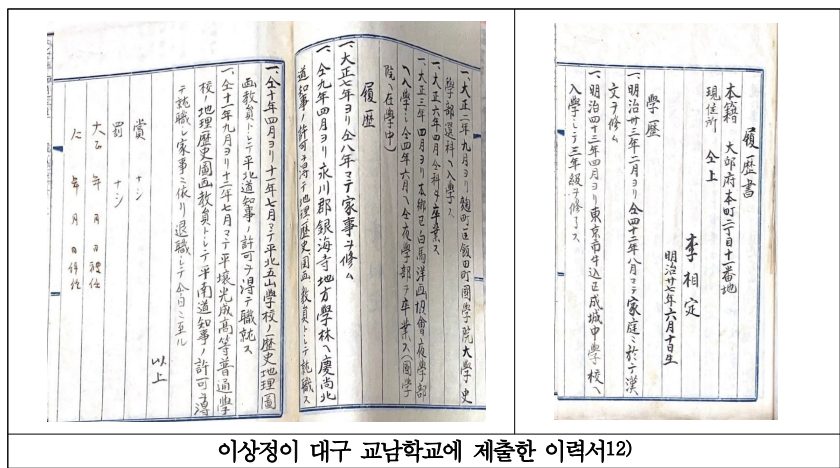
10) 백기만은 여기서 이상정의 문화예술 방면에서의 재능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군의 시서화(詩書畫)는 전문 대가들을 경탄케 하였고 장군의 전각예술은 근역 5천년을 통한 거장(巨匠)임을 청람인보(靑嵐印譜)가 말하는 바입니다. 장군은 일찍이 사학(史學)으로 천명하였고, 특히 궁중비사에 있어서는 조선의 권위였습니다.” 백기만, 「곡조(哭弔)·이상정장군」, 대구시보, 1947. 11. 11.

11) 최기영, 「이상정(1987~1947)의 재중독립운동」, 『역사학보』 200, 2008. 12, 345~370쪽.

이상규, 「청남 이상정의 연보」, 『이상정과 이여성』, 민속원, 2021, 161~167쪽.

행적, 교원으로 근무한 학교 및 시기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생년은 1894년(『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1896년(『중국유기』, 이상규), 1897년(『경주이씨소경공파보』, 최기영), 1898(호적) 등 각기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이상정이 1923년 대구 교남학교에 제출한 ‘자필 이력서’에는 명치27년(1894)년으로 되어 있다. 이상정 자신이 쓴 이력서이기에 1894년을 생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1923년 7월까지 이상정이 직접 기록한 이력서에는 본적, 현주소, 생년월일, 학력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중국 망명 전 이상정의 행적을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상정이 대구 교남학교에 제출한 이력서12)

위의 이력서는 전체 3쪽으로 이상정이 1923년 7월 이후 교남학교에 교원 또는 강사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이를 해독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2021년 교남학교의 후신인 대구 대륜고등학교가 이상정의 이력서를 독립기념관에 기탁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 중국망명 전 이상정의 삶과 문화투쟁(박용찬)

이력서

본적 대구부 본정 이정목(二丁目) 11번지

현주소 동상

이상정

明治 27년(1894) 6월 10일 생

학력

- 明治 33년(1900) 2월부터 동42년(1909) 8월까지 가정에서 한문을 수학함
- 明治 43년(1910) 4월부터 東京市 牛込區 成城中學校 입학하여 3년급을 수료함
- 大正 2년(1913) 9월부터 麴町區 飯田町 國學院大學 史學部 選科에 입학함
- 大正 6년(1917) 4월 동과를 졸업함
- 大正 3년(1914) 4월부터 本郷區 白馬洋畫協會 夜學部에 입학하고, 동4년(1915) 6월에 동 야학부를 졸업함(國學院에 재학중)

이력

- 大正 7년(1918)부터 동 8년(1919)까지 가사일(家事)을 행하고(修)
- 동 9년(1920) 4월부터 영천군 銀海寺 地方學林에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지리, 역사, 도화 교원으로 취직함
- 동 10년(1921) 4월부터 11년(1922) 7월까지 평북 五山學校의 역사, 지리, 도화 교원으로서 평북 도지사의 허가를 득(得)하여 취직함(職就)
- 동 11년(1922) 9월부터 12년(1923) 7월까지 평양 光成高等普通學校의 지리, 역사, 도화 교원으로서 평남도지사의 허가를 득(得)하여 취직하고, 가사(家事)에 의해 퇴직하고 금일(今日)에 이룸(至)

이상

상 무

별 무

위의 이력서에 나타난 제 사실을 바탕으로 이상정의 중국망명 전까지 삶의 행적과 삶의 轉機가 되는 주요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07년 아버지 又南 李時雨를 여의고 백부 小南 李一雨의 슬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상정은 자연스레 백부 이일우가 세운 友弦書樓나 집안 私塾을 드나들면서 한학과 근대지식을 습득하였다. 우현서루는 1904년

(갑진년) 서울 유람을 통해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지식 보급의 필요성을 깨달은 소남 이일우가 부친 錦南 李東珍의 후원하에 세운 교육기관이자 書庫라 할 수 있다.<sup>13)</sup> 이일우는 1905년초 ‘時務學堂’을 인허해 줄 것을 學部에 청원하면서 우현서루의 설립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였다. 우현서루는 1905년에서 1910년대 초 동서 신구서적을 보유한 서고이자 교육 기관으로 대구에 자리 잡았다. 당연히 소남 이일우 家 자체들을 위한 사숙의 기능도 일부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894년을 그의 생년으로 확정한다면, 이 시기 이상정의 나이 11세~15세였으니 우현서루를 드나들 수 있는 충분한 나이였다. 이 당시 우현서루에는 장지연, 박은식, 이동휘, 조성환, 김지섭 같은 지사들 외에 국학자 안확<sup>14)</sup>도 드나들었다. 이들을 보면서 이상정은 동서양의 정세와 지식 습득은 물론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상정이 1910년대 초에 세워진 講義院을 수학했다는 주장도 있으나<sup>15)</sup> 1910년 이후 이상정은 일본 유학 중이라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1910년 이상정은 일본 成城中學校에 입학한다.<sup>16)</sup> 1900년(명치 33년) 2월부터 1909년(명치 42)년 8월까지 이상정은 대구에서 한문을 수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이력서에 나타난 ‘가정에서 한문을 배우고 익혔다’는 기술은 이 시기 이상정이 소남 이일우 家의 사숙이나 友弦書樓에서 漢學과 동서양 역사, 詩書畫 등에 대한 소양을 두루 닦았음을 보여준

13) 우현서루에 대해서는 박용찬, 「대구의 문학 장(場) 형성과 우현서루」, 『대구경북 근대문학과 매체』, 역락, 2022, 125~152쪽 참고.

14) 1910년 전후 安廓의 대구 滯在는 그가 남긴 『중등교육 대한문법』(협성학우회, 1910)의 刊記에 나오는 대구 협성학교 교수라는 표기, 또 소남 이일우가 우현서루에서 안확과 함께 공부하였다는 사실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증인 이일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 국사편찬위원회, 1988, 44쪽.

15) 신동근, 「청남이상정장군고」, 『승남이중회교수 회갑기념 수필 및 학술논문선집』, 1979, 15~16쪽.

16) 자필이력서에는 명치 43년(1910) 4월에 일본 동경 소재 成城中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수학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렇다면 渡日은 1910년 이전인 1909년말 무렵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상화, 백기만과 함께 대구에서 동인작문집 『거화』를 만들었던 소설가 현진건도 그후 成城中學校를 졸업하였다.

다. 교남시서화연구회를 이끌었던 石齋 徐丙五가 백부인 소남 이일우와 사돈 관계인 것을 염두에 두면, 시서화에 대한 소양은 소남 家에 드나들던 식재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한편 일본유학 시절 이상정의 학력과 귀국 후 국내에서의 교원 이력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위의 자필이력서를 바탕으로 그의 동경유학 시절을 먼저 고증해 보기로 하자.

이상정은 東京市 牛込區 成城中學校를 1910년 4월에 입학하여 3년급을 수료하였는데, 이후 전문부 과정인 상급학교의 진학을 시도하였다. 중학에서 전문과로 가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저간의 사정은 이상정이 백부 소남 이일우에게 보낸 서간에 잘 나타나 있다.<sup>17)</sup> 이 서간에 의하면 이상정은 동경에서 소남 이일우의 아들인 사촌 仲兄인 李相武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당시 成城中學校를 졸업할 즈음, 백부에게 “전문부(상과 및 미술학교) 진학에 필요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도움을 요청”<sup>18)</sup>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상정이 “일본에서 부기공부를 했다”<sup>19)</sup>는 진술도 있다. 상업학교 관련 부기공부를 한 이력에 대해서는 이 진술 외에 증빙자료가 없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자필이력서에 등장하는 國學院大學 수학 기간은 이상정이 역사와 지리, 미술에 관한 문화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7) 이 서간은 대구 달서구 소재 이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문과 번역문을 현재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번역문을 소개하기로 한다. “백부님 앞에 올리는 편지. 요사이 조모님의 기체후(氣體候)가 한결같이 편안하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백부님 내외분의 기체후도 한결같이 편안하신지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하여 지극한 저의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저와 둘째 형은 객지에서 먹고 자는 것이 이전과 같이 그럭저럭 지내니, 다행스러운 마음 어찌 말로 다하겠습니다. 삼가 아뢴 부분은 저의 학교 졸업이 십여 일 남짓 남았지만 한 차례 편지도 올리지 못했으니, 마음의 근심스러움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용서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번 저의 졸업은 중학 정도에 불과하니 중학 과정을 당겨 이로부터 전문과에 입학하기로 정했습니다. 며칠 전 동경 조일신문에 이르길 ‘조선에 금전이 매우 귀해 흰쌀 한 섬에 칠원 남짓이다’고 하여 조선의 재정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만 줄이고 편지를 올려 아웁니다. 양력 11월 16일 조카 상정 올림”

18) 이상규, 『이상정과 이여성』, 민속원, 2021, 126쪽.

19) 「증인 이일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 국사편찬위원회, 1988, 44쪽.



部(3년제), 大學豫科(2년제), 神道部(4년제), 高等師範部(4년제), 興亞部(3년제), 神職養成部(2년제)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그중 學部에는 道義學科, 國史學科, 國文學科가 있었다. 國史學科 졸업자에게는 고등교원 일본사 급 동양사 면허장 수여, 중등교원 역사, 영어 면허장 수여라는 특전이 있었다. 1923년에 東京市 澁谷區 若木町으로 교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정의 자필이력서에 의하면 그는 1913년 9월 麴町區 飯田町 國學院大學 史學部 選科에 입학하여 1917년 4월 同科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상정은 澁谷區로 이전하기 전의 麴町區에 소재했던 國學院大學에 다녔다고 할 수 있다. 學部(3년제)의 3개 학과(도의학과, 국사학과, 국문학과) 중 국사학과(이력서에는 史學部로 기재됨) 選科를 입학하였는데, 당시의 國學院大學은 학부와 대학예과, 고등사범부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학교였다. 여기서 選科란 말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選科란 규정된 학과의 일부 과목만을 선택해 배우는 과정 또는 학과이며, 본과에 준하는 과정이다. 일본의 제국대학에 있어서는 본과의 결원을 메우는 형태로 모집이 행해졌다. 수업 연한은 본과와 마찬가지로 3년이었지만 학교도서관 등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수수료도 학사학위는 부여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본과와 달리 중학교 졸업 자격이면 입학이 허용되었다. 입학 후 전문학교 학력인정시험이나 고등학교 학력인정시험에 합격하면 본과로 들어가는 것이 인정되어, 그때까지의 재학기간도 통산해 3년에 수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당시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전문학교, 2년제 대학예과 또는 학부의 選科生으로 지원이 가능했다. 그래서 成城中學校 3년을 졸업한 이상정은 사학부 선과생으로 國學院大學에 진학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이번 저의 졸업은 중학 정도에 불과하니 중학 과정을 당겨 이로부터 전문과에 입학하기로 정했”다는 이상정이 백부 소남 이

21) 김태곤, 앞의 논문, 47쪽에서 國學院大學의 학적부나 졸업생 명부에서 이상정을 찾을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면 이상정이 선과생이란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일우에게 보내는 서간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여튼 이상정이 귀국 후 역사, 지리 과목 교원을 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이나 『표박기』에 드러난 역사와 지리에 관한 해박한 지식 등은 상당 부분 國學院大學 시절에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國學院大學을 다니던 시기 이상정은 저녁에 1년여 과정의 白馬洋畫協會 夜學部까지 졸업하였다. 이상정이 大正 3년(1914) 4월 本郷區 소재 白馬洋畫協會 야학부에 입학하여 大正 4년(1915) 6월에 동 야학부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은 西洋畫家 이상정의 문화자본을 파헤치는 데 중요한 이력이다. 이것은 도화 교원 또는 서양화가 이상정의 등장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가 다녔다는 東京市 本郷區 白馬洋畫協會 야학부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白馬會와 그것과 관련된 서양화연구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白馬會의 중심인물은 黒田淸輝이다. 그는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 1884년 프랑스로 건너갔다. 중도에 화가가 되기 위해 1886년 ‘라파엘 콜랭(Raphael Collin) 스튜디오’에 들어간다. 여기서 그는 콜랭의 제자로 “고전적인 사실 기법에 인상파풍의 밝은 外光 표현을 가미한 화풍”<sup>22)</sup>을 배우게 된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黒田淸輝를 중심으로 형성된 外光派는 天眞道場을 출발점으로 급속히 세력을 키워나간다.<sup>23)</sup> 1896년 東京美術學校 서양화과 신설과 더불어 黒田淸輝는 주임교수로 임명되었으며, 그해 黒田淸輝와 久米桂一郎는 舊派와 결별하며 白馬會를 결성하였다. 白馬會는 “거의 매년 전시회를 열어 1911년 해산 때까지 13회를 거듭 개최하였으며, 오늘날 메이지 양화의 명작으로 일컬어지는 거의 대부분 이 전시회를 통해 나왔다.”<sup>24)</sup> 白馬會는 또한 회화연구소를 개설하여 연

22) 大野郁彦, 「일본 근대미술과 동경미술학교」, 『월간미술』, 1989. 9, 68쪽.

23) 갈색을 많이 사용하는 기존의 화가들이 그린 화면이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와 같이 끈끈하다는 의미로 송진파(松津派), 혹은 구파(舊派)라 하고, 외광을 받아들여서 색조가 밝고 특히 어두운 부분에도 보라색이나 청색을 사용하는 黒田淸輝 등의 외광파를 보라파(紫派) 혹은 신파(新)라 하였다. 岩崎吉一·原田 實 편저, 강덕희 역, 『일본 근대회화사』, 예경, 1998, 189쪽.

24) 岩崎吉一·原田 實 편저, 위의 책, 190쪽.

구생을 모집하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1898년 黒田清輝는 미술학교 졸업 후 서양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장소로 白馬會洋畫研究所를 설치하였다. 이후 1904년 6월 本郷區 菊坂町 30번지에 제2연구소가 개설되고 長原孝太郎과 小林鐘吉이 실기지도 하였다. 1904년 12월에 1901년 4월 藤島武二에 의해 개설된 藤島洋畫研究所(本郷區駒込曙町)를 白馬會駒込研究所로 하였다. 제1연구소를 白馬會溜池研究所, 제2연구소를 白馬會菊坂研究所라 불렀다. 白馬會駒込研究所는 1905년 9월 藤島武二의 유럽유학으로 폐쇄되었다. 1905년경 白馬會溜池研究所는 和田英作과 湯淺一郎에 의한 실기지도가 이루어졌다. 1907년경 溜池研究所는 黒田의 실기지도, 久米의 강의담당체제로 돌아온다. 그후 葵橋로 이전, 葵橋研究所로서 1923년까지 존속되었다. 또 菊坂研究所는 小石川區原町 54번지로 이전, 白馬會原町研究所가 된다.<sup>25)</sup>

한편 1911년 白馬會가 해산되고 그 후신으로 1912년 光風會가 결성되었다. 1912년 岡田三郎助가 설립한 本郷洋畫研究所(1924년 本郷繪畫研究所로 개칭) 또한 白馬會·光風會에서 파생된 미술연구소였다.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실기 교수는 黒田清輝, 和田英作, 岡田三郎助, 長原孝太郎, 藤島武二 등이었는데, 이들 모두 白馬會 관련 洋畫研究所 운영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 4월 이상정이 입학하였다는 本郷區 白馬洋畫協會 야학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本郷區에 白馬會 관련 미술학교 내지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 本郷區에 설립된 白馬會 관련 양화연구소는 1904년 6월 本郷區 菊坂町 30번지에 세워졌던 白馬會菊坂研究所와 1912년 岡田三郎助가 설립한 本郷洋畫研究所가 있다. 그런데 白馬會菊坂研究所는 本郷區에서 小石川區原町 54번지로 이전하였다. 이상정이 다녔다는 白馬洋畫協會 夜學部는 白馬會菊坂研究所라기보다 1912년 岡田三郎助가 설립한 本郷洋畫研究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白馬會와 관련된 양화연구소의 학제와 지도내용은 어떠했을까?

25) 植野建造, 『日本近代洋畫の成立 白馬會』, 中央公論美術出版, 2005, 32~33쪽 참고.

 <p>白馬會編輯部, 『光風』 제1호, 광풍발행소, 1905. 5. 3.</p>	 <p>내지 광고</p>
---	--

위의 자료는 1905 5월 3일 白馬會편집부가 발간한 『光風』 제1호이다. 『光風』은 1905년 黒田清輝가 창간한 白馬會 기관지이다. 내지에 白馬會 관련 양화연구소의 학생모집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윗 부분은 白馬會溜池研究所, 아랫 부분은 白馬會菊坂研究所의 학생모집 광고이다. 白馬會溜池研究所는 東京市 赤坂區 溜池町 3번지, 白馬會菊坂研究所는 東京市 本郷區 菊坂町 30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 광고에는 학제, 과목, 지도내용이 담겨 있다. 本郷區에 있는 白馬會菊坂研究所의 과목 및 지도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白馬會菊坂研究所

- 과목은 유화, 목탄, 수채, 연필
- 오전은 인체사생, 정물사생
- 오후는 석고사생, 인체사생
- 야학부
  - 목탄 석고사생은 주간에 여가가 없는 사람을 위하여 개설함
  - 연필 인체사생은 연필로 단시간에 스케치의 요령을 스스로 익히게 하는 것임
- 소비(所費, 비용) 금일원오십전
  - 석고, 인체, 야간사생부의 어느 쪽을 불문하고 한 과의 소정의 비용이면 됨
- 기명료(記名料, 등록비) 금3원
- 주간 목탄화를 익히는 자는 특별히 1주간 십이전의 모델비를 납부하면 야학부를 겸하여 배울 수 있음
- 白馬會 회원 長原孝太郎, 小林鐘吉 양씨가 담임함

本郷 菊坂町 三十番地  
菊坂研究所<sup>26)</sup>

白馬會菊坂研究所의 경우 오전, 오후, 야학부로 나누어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르치는 과목은 유화, 목탄, 수채, 연필로, 오전은 인체사생, 정물사생, 오후는 석고사생, 인체사생이다. 야학부의 경우 이러한 과목을 중심으로 하되, 목탄 석고사생, 연필 인체사생을 가르치고 있다. 本郷洋畫研究所 또한 이러한 운영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정은 本郷洋畫研究所의 야학부에서 유화, 목탄화, 수채화, 연필화에 의한 인체사생, 정물사생, 석고사생을 기본으로 서양화에 관한 기본적인 미술수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수업내용 및 분위기는 白馬會를 이끌고 있는 外光派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白馬會 관련 미술 연구소는 黒田清輝의 당초 구상처럼 미술학교 졸업 후 서양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미술학교 입학전의 학생들이 서양미술을 배우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정은 白馬會가 아니고 白馬洋畫協會라고 하였다. 이는

26) 白馬會編輯部, 『光風』 1, 光風發行所, 1905, 5. 3, 내지.

1911년 3월 白馬會가 해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 1911년 白馬會가 해산되고, 그 후신으로 1912년에 光風會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白馬會 관련 회원들이 운영하는 양화연구소는 東京 각지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상정은 國學院大學 재학시 本郷區의 白馬會 관련 양화연구소 야학부를 다니며, 목탄 석고사생, 연필 인체사생은 물론이고 서양화에 관한 제 기량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교육, 미술, 문학을 통한 문화투쟁

#### 1. 교원 이력 고증과 민족계몽 교육

이상정의 문화자본은 소남 이일우 家에서 익힌 詩書畫에 대한 소양과 일본유학을 통한 역사, 지리, 미술에 관한 근대지식 습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정의 일본에서의 귀국은 國學院大學을 졸업한 1917년이다. 자필이력서에 의하면 國學院大學 史學部를 1917년 4월 졸업하고 1918년, 1919년까지 집안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에 이상정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대구 지역의 사립학교에 일정 기간 교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대구에는 계성학교, 신명학교 등의 북장로계열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계성학보』 5호(1917.7)에 수록된 「교원씨명 급 분담과목 일람」에 의하면 이상정은 1917년 4월 현재 圖畫(自裁畫) 담당 교원으로 되어 있다.<sup>27)</sup> 백기만이 편한 『중국유기』(1950)의 「장군의 약력」 부분에 1919~1921년 대구계성학교와 대구신명여학교의 교원이란 기록이 있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신명학교에 대한 증빙자료 또한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명치 42년(1909) 東京 成城學校

27) 「교원씨명 급 분담과목 일람」, 『계성학보』 제5호, 1917. 7, 18쪽. 『계성50년사』(1956)의 「구직원일람표」에도 이상정은 1917년부터 1919년 사이 圖畫 과목 교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계성50년사편찬위원회, 『계성50년사』, 1956, 부록 6쪽.

3개년 수학, 대정원년(1912) 9월 東京 國學院에 입학하여 동 4년(1915) 8월 졸업 후 사립 대구계성학교, 평북 오산학교, 평양 광성고보 등에서 교편을 잡았다”<sup>28)</sup>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기록이나 『중국유기』에 나오는 제 약력<sup>29)</sup>은 이상정이 손수 쓴 자필이력서의 기록과 비교하면 시기나 사실이 여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추모 문집의 성격이 강한 『중국유기』의 경우 약력 부분 등은 백기만이나 친지들의 기억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정은 1917년 봄 일본 國學院大學을 마치고 귀국, 대구의 북장로계 기독교 학교인 계성학교의 도화교원으로 교육사업에 투신하였다. 이후 그의 자필이력서에 의하면 1920년 4월부터 대구 인근인 영천군 銀海寺 소속 地方學林의 지리, 역사, 도화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학림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에 따라 불교계는 불교 교육 學制를 모색하게 되는데, 1915년 7월 15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지방학림 학칙과 강령을 승인 받게 된다. 그 결과 불교계의 학제는 일본식 불교교육 체제인 학림 체제로 개편되었다. 中央學林을 불교 최고 학부로 두고, 그 기초학교로 지방에 지방학림과 보통학교 과정을 두었다. 1919년 3·1만세 운동 당시 지방학림은 불교계 만세운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한용운과 유심사에 모여 만세운동을 기획한 중앙학림 학생들도 대부분 지방학림 출신이었다. 경상도의 경우 동화사 지방학림, 범어사 지방학림, 문경 김룡사 지방학림 등이 지역의 3·1만세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3·1만세 운동 전후 지방학림은 일제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민족의식이 충만한 장소였다. 3·1운동 직후인 1920년 4월에 이상정이 은혜사 지방학림에서 교원 생활을 한 것은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가진 이상정의 성정과 잘 부합되었다고 할 수 있

28)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경성, 조선총독부 경무국, 1934, 286쪽.

29) 『중국유기』(청구출판사, 1950)에 기록된 중국 망명 전 「장군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19년 일본 國學院大學 졸업, 1919~1921년 대구계성학교와 대구신명여학교의 교원, 1921년 대구에서 洋畫 개인전람회 개최, 1921~1923년 경성 경신학교와 정주 오산학교의 교원, 1923년 해외로 망명”

다. 이후 이상정은 전국의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민족교육에 전념하게 된다.

1921년 4월부터 1922년 7월까지 평안북도 정주의 五山學校에서 역사, 지리, 도화 교원으로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선다.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이 도산 안창호의 영향<sup>30)</sup>을 받아 1907년 12월 24일 평북 정주에 세운 민족학교였다. 백이행, 박기선, 여준, 서진순, 류영모, 신채호, 이광수, 조만식, 윤기섭, 염상섭, 김억 등이 교사, 교장으로 재임 하였으며,<sup>31)</sup> 민족정신 고취에 주력한 기독교계 민족학교였다.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에 참가한 이승훈은 일제에 의해 투옥되고, 오산학교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 속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일시 폐교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상정이 근무하던 1921년 당시 교장은 고당 조만식(4월 강제 퇴임)과 다석 류영모(1921년 7월 부임)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산학교에서 역사, 지리, 도화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상정은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과 민족의식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표박기』의 「T현에서」란 글에서도 오산학교 이야기가 나온다.<sup>32)</sup> 오산학교 학생들이 조밥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정은 연민과 비애의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한편 자필이력서에 의하면 이상정은 1922년 9월부터 1923년 7월까지 평양 광성고등보통학교의 지리, 역사, 도화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력서의 일자와 달리 이상정은 1922년 3월 28일

---

30) 구한말 사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이승훈은 안창호의 연설과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며, 평북 정주군 갈산면에 오산학교를 세웠다. 오산학교는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와 함께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교육 기관이었다.

31) 오산백년사편찬위원회, 『오산백년사 1907-2001』, 학교법인 오산학원, 2007, 59~82쪽.

32) “내가 본국 평북지방에서 학생들이 조밥 먹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1922년 무렵 정주 오산학교 교원 시절 나는 울었다. 저 항우와 초패와 같은 기골에 조밥을 먹고 어찌 견디나? 무슨 양분이 있을까? 부지중에 눈이 흐려지고 코끝이 뜨끈뜨끈했다.” 이상정, 「T현에서」, 『표박기』, 이상규 엮음, 상화기념관·이장가문학관, 2023, 41~42쪽. 이상정의 오산학교 교원 경력은 이상정 본인의 글 외에 백기만의 「곡조·이상정 장군」(대구시보, 1947. 11. 11)에서 “오산중학의 교편을 던지고 표연히 해외로 망명”하였다는 기술에서도 나온다.

대구부 서성정 일정목 李一雨씨 덕 入納'의 書簡을 광성고등보통학교에서 보내고 있다.<sup>33)</sup> 발신인은 '姪子 相定 上書'이며 발신인 주소는 '평양부 남산정 사립 光成高普 교내'이다. 그렇다면 자필이력서에 나오는 1921년 4월부터 1922년 7월까지 오산학교에 근무하였다는 기록은 무엇인가? 이 서간을 인정한다면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와 평양의 광성고등보통학교 근무 시기가 5개월 정도 겹치게 된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 정주의 오산학교에 근무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평양의 광성고등보통학교에 강사로 출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3·1운동 직후 이상정은 영천 은혜사 지방학림,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광성고등보통학교 등을 전전하면서 민족계몽 교육에 진력하였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중국 망명 후에도 이어진다. 북만주 흑룡강성 하얼빈 통허현의 Y학교(한인학교) 근무가 그것이다. 『표박기』에 나오는 「T현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이상정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북만주의 겨울은 우리 조선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로 다 못할 추위다. 머리카락과 수염에 얼음이 달리고 코끝이 어는 추위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소변을 누면 바로 고드름이 되는 곳이다. 교실에 난로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막아내지 못할 추위이다. 그런데 화목으로 석탄을 대신하는 이 지방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교실이 연실(煙室)이 되고 만다. 남학생은 그래도 관계없다 할지 모르지마는 여학생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또 서쪽에서 씨를 뿌리고 동쪽에서 밭을 가는 것으로 해마다 유랑하는 이도 있으니 항구적인 재산이 없어 그러한지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자리 왔다가 자리 떠나는 떠돌이를 하는 이들을 종종 보았다. 일반의 생활이 이러하니 그 아이들인 학생들의 생활은 다시 무엇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마주 앉아 웃거나 즐거워하기는 이 학생들 외에는 다시 구하지 못하니 그네는 가난과 추위에 단련을 받고 눈바람에 연마되어서 굳센 가운데도 민첩하고 침묵한 중에도 태연한 중에도 열렬히 뛰노는 까닭이다.<sup>34)</sup>

33) 「이상정이 백부 이일우에게 보낸 편지」, 1922. 3. 28. 대구 달서구 소재 이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소장. 이상규, 『이상정과 이여성』, 민속원, 2021, 127~129쪽. 편지 겹봉의 직인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정이 가난과 추위에 시달리는 북만주 한인 동포에 대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조밥 먹는 오산학교 학생들에 대해 느꼈던 감정과 동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귀국 후 중국 망명 전까지 지리, 역사, 도화 교원으로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이상정은 조선민족의 참상을 목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포애가 증대되고 민족적 감정이 더욱 고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직후 대구에서 잠시 행방을 감추기도 했던<sup>34)</sup> 이상정은 영천(은혜사 지방학립), 평북(정주 오산학교), 평남(평양 광성고보) 등의 제 학교에서 역사, 지리, 도화 과목의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독립운동 전선에서 보면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은 도산 안창호의 준비론 사상에 맞닿아 있다. 교육자 및 서양화가로서의 이상정의 제 활동은 일제에 대한 문화투쟁의 한 부분으로, 무장투쟁으로 나아가는 前 단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도화 담당 교사였던 이상정이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로 활동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1923년 7월 평양 광성고등보통학교를 퇴직하고 이상정이 다시 대구에 돌아온 해가 1923년이다. 이력서에 의하면 1923년 7월까지 이상정은 평양의 광성고등보통학교에 근무하였다. 대구의 교남학교에 자필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1923년 7월 이후이다.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구의 교남학교에 이상정이 교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증빙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34) 이상정, 「T현에서」, 『표박기』, 이상규 엮음, 상화기념관·이장가문학관, 2023, 41~43쪽.

35)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사건의 증인 신문조서에서 소남 이일우는 3·1운동 직후 이상정의 행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죽은 동생의 아들 이상정이란 자는 일본에서 부기 공부를 했다는데, 그는 원래가 방탕무퇴하여 항상 내가 감독을 하고 있으나 지금부터 한 달 쯤 전에 가출하여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혹은 그와 신문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도 3·4만 원의 재산이 있다.” 「증인 이일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 국사편찬위원회, 1988, 44쪽.

## 2. 개인전람회 출품과 벽동사 창설

이상정의 미술 관련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1921년 대구에서 서양화 개인전람회를 개최하고 1923년 대구미술전람회에 서양화를 출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술연구소 碧瞳社를 창립한 것이다.

교원으로서 주로 도화 과목을 담당했던 이상정의 미술에 대한 소양은 1910년대 동경 유학시절에 길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동경에서 이상정은 成城中學校와 國學院大學을 다녔다. 國學院大學 재학 중 1914년 4월부터 1915년 6월까지 1년 남짓 東京 本郷區에 소재한 白馬洋畫協會 夜學部를 다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白馬洋畫協會를 통한 서양화 수학은 서양화가로서의 이상정의 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또 하나는 1910년대 동경의 미술풍토이다. 특히 이 시기 東京美術學校 등 동경에 유학온 조선인 유학생들의 성취가 이상정의 미술 관련 재능을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 동경은 조선인 유학생들이 문학과 역사와 미술에 심취해 있던 장소였다. 1914년 4월부터 제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에서는 기관지 『學之光』까지 발간하고 있었다. 『학지광』에는 언론, 학술, 문예, 학우회 기사 등 다양한 글들을 싣고 있었다. 3호, 4호, 5호에 글쓴이로 장덕수, 현상윤, 나혜석, 최승구, 최두선, 최소월, 안화, 김찬영, 송진우, 김억 등이 보인다.

1910년대 조선인 유학생들 중 미술분야에서 성취를 보여준 화가는 高義東, 金觀鎬, 金瓚永, 羅蕙錫 등이다. 이중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 등은 처음에는 모두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선과에 입학하였다. 고희동은 1909년에서 1915년, 김관호는 1911년에서 1916년, 김찬영은 1912년에서 1917년 동안 동경미술학교에서 미술공부를 했다. 이때의 동경미술학교 실기교수는 黒田淸輝, 和田英作, 岡田三郎助, 長原孝太郎 등으로,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白馬會와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

안중식과 조석진의 문하를 드나들던 고희동은 宮内府 출장 명령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다가 1909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선과생으로

입학한다. “1915년 3월 29일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선과 과정을 이수”<sup>36)</sup>하고 귀국한 고회동은 최초의 서양화가로 환영받았다. 귀국 후 고회동은 신미술 운동에 관심을 갖고 1918년 서화계의 중진과 대가들을 종용하여 최초의 한국인 서화가들의 모임이자 근대적인 의미의 미술 단체인 서화협회(초대회장 안중식, 총무 고회동)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1914년 10월 『청춘』 창간호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다.

김관호는 1911년 9월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선과생으로 입학했으나 1916년 3월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였다. 그해 10월, 졸업 작품인 「해질녘」으로 제10회 일본 문부성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해질녘」은 대동강 능라도 부근 물가에서 목욕하는 두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누드화이다. 춘원 이광수가 매일신보 지면에 「동경잡신-문부성미술전람회기」를 3회에 걸쳐 썼을 만큼<sup>37)</sup> 국내외 반향이 컸다.

김찬영은 1912년 9월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선과생으로 입학했다가 1917년 3월에 졸업한 뒤 귀국, 미술 창작과 더불어 『창조』, 『폐허』, 『영대』의 동인으로 참가하는 등 문예활동도 열심히 했다. 金惟邦이란 필명으로 비평문을 쓰기도 하고, 김억의 『오뇌의 무도』나 동인지 『영대』 창간호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나혜석은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1913년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동경의 여자사립미술학교 서양화과 선과에 입학, 다시 고등사범과로 옮겨 1918년까지 5년간 동경에서 미술공부를 한다. 1914년 『학지광』(1914.

36) 「고회동 동경미술학교 졸업장」, 조은정, 『춘곡 고회동』, 컬처북스, 2015, 137쪽.

37) 이광수, 「동경잡신-문부성미술전람회기(1)」(매일신보 1916. 10. 28), 「동경잡신-문부성미술전람회기(2)」(매일신보, 1916. 10. 31), 「동경잡신-문부성미술전람회기(3)」(매일신보, 1916. 11. 2)

“「조선의 그림」이라는 여학생들의 소리에 번적 정신을 차려 보니 대동강 석양에 목욕 두 여인을 화(畵)한 김관호군의 「ひぐれ(日暮)」. 아아 김관호군이여 감사하노라. 차(此)에 군의 작품 1점이 무(無)하였던들 얼마나 여(余)로 하야곰 저어(齟齬)케 하였스리오. 여(余)는 군이 조선인을 대표하였음을 다사(多謝)하노라.……차고를 완한 후에 신문에 김군의 화가 특선에 입하다는 기사를 보다. 아 특선! 특선! 특선! 특선! 함은 미술계의 알성급제라” 이광수, 「동경잡신-문부성미술전람회기(3)」, 매일신보. 1916. 11. 2.



12)에 「이상적 夫人」이란 논설, 1918년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에서 발간한 『여자계』 2호(1918. 3)에 단편소설 「경희」를 발표하면서 유학생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상정이 유학하고 있던 1910년대 동경은 이처럼 조선인 유학생들이 예술을 향유하고 서양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다.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 나혜석 등 조선인 유학생들의 미술활동은 이미 시서화에 재능을 가지고 있던 이상정의 예술적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귀국 후 이상정이 근무한 여러 신식학교에서 도화 과목을 담당하였던 것, 개인전과 단체전에 서양화를 출품한 것, 중국 망명 후 篆刻 예술에 전념한 것 등은 모두 집안 사숙에서 배태된 시서화에 대한 그의 소양과 일본 동경에서의 서양화 체험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기만이 편한 『중국유기』(청구출판사, 1950) 중 「장군의 약력」 부분에 ‘단기 4254년 대구에서 양화 개인전람회 개최’<sup>38)</sup>란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상정은 1921년 대구에서 서양화개인전을 개최한 것이 된다. 이상정이 최초의 대구서양화가란 말은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21년에 열었다는 서양화 개인전람회에 관한 자료는 이 기록 외에 어떤 증빙자료도 현재 남아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상정이 본격적으로 서양화가로 등장한 것은 1923년 2회 교남시서화전인 대구미술전람회였다.

대구청년 이여성(李如星), 정운해(鄭雲海), 서건호(徐建鎬), 서병인(徐丙仁) 등 제씨의 주최로 미술전람회를 금일 12일부터 17일까지 서성정 노동공제회관 내에서 개최하는데 개관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 하며 입장은 무료이라더라<sup>39)</sup>

대구미술전람회는 기보와 같이 지난 십일일부터 노동공제회관(勞動共濟會館) 안에서 열리었는 바 이는 적어도 남국(南國) 정조(情調)와 풍토를 가진 곳에서 처음 표현되는 예술의 빛이다. 회장(會場)은 무료 공개인 바 입장 인수는 매일 오륙

38) 「장군의 약력」, 이상정장군 유고, 『중국유기(中國遊記)』, 청구출판사,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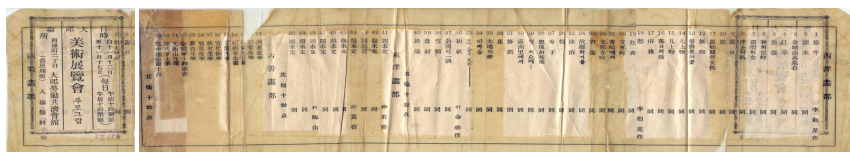
39) 「대구미술전람 공제회관에 개최」 동아일보 1923. 11. 12.

백 명에 달하는 성황을 이루어 좁은 공제회관이 더욱 답답케 된 바 출품점수는 서양화부에는 리여성(李如星) 군의 「유우(悠牛)」 외 16점, 리상정(李相定) 군의 「지나사원」 외 13점, 황윤수(黃允守) 군의 「봄비 온 뒤」 외 5점, 박명조(朴命祚) 군의 「초추(初秋)」 외 5점, 합 43점인 바 눈 뜨이는 가작이 이외에 많아서 대구에 이만한 미술가가 있었던가를 의심할 만큼 되었고, 동양화부의 출품은 40점인 바 서석재(徐石齋)의 난초, 서경재(徐敬齋)의 매화, 서태당(徐兌堂)의 대, 박희산(朴晦山)의 글씨, 허기석(許箕石)의 산수가 그 중 호평이었으며, 고서화부 출품은 30여점인 바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추사(秋史), 미수(眉叟)의 친필과 최소동육세서(崔小東六歲書)와 휴휴당(休休堂) 임사당(任姒堂)의 화(畵)이며 조월파(趙月波)의 금강산 사생 등이었더라.<sup>40)</sup>

192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대구 서성정의 노동공제회관에서 열린 대구미술전람회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서양화부는 이 기사에서 보듯이 ‘눈에 뜨이는 가작이 이외에 많아서 대구에 이만한 미술가가 있었던가’란 평가까지 받았다. 1923년은 대구 지역에서 서양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벽두에 대구의 서양화가로 이여성, 이상정, 황윤수, 박명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초창기 대구의 서화계를 주도한 인물은 석재 서병오이다. 그가 주도한 서화 단체는 1922년 1월 서화 교류, 후진 양성 및 교육, 전람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嶺南詩書畵硏究會였다. 교남시서화연구회의 회장은 서병오, 부회장에 박기돈, 강사는 정용기, 서병주였고, 총무는 이영민, 김재환, 이사는 김홍기, 회계는 서창기였다. 연구생은 배효원, 서동균, 서창규, 서병주, 김응섭, 김진만 등이었다. 1922년 5월에 첫 전람회가 열렸고, 1923년 11월에는 동양화부, 서양화부, 고서화부까지 포괄하는 대구미술전람회를 개최했다. 대구미술전람회는 대구 西城町 二丁目에 위치한 노동공제회관에서 192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 사이 열렸다. 위의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대구미술전람회에 이상정은 「지나사원」 외 13점을 출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래는 대구미술전람회 프로그램 목록이다.

40) 「대성황의 대구미전」, 동아일보, 1923. 11. 17.



대구미술전람회 프로그램 1923. 11. 12. -11. 17.

위의 「대구미술전람회 프로그램」 목록에 의하면 이여성은 17점, 이상정은 18점, 박명조는 5점을 출품하였으며, 기타 十數占의 서양화도 출품되었다. 이상정이 출품한 서양화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수(愁)」, 「광분(狂奔)」, 「지나정(支那町)」, 「청도(靑嶋)에서」, 「지나사원(支那寺院)」, 「초상(肖像)」, 「고향(故郷)의 가을」, 「목욕(沐浴)」, 「한(恨)」, 「모자(母子)」, 「상상(想像)의 영웅(英雄)」, 「첸 치오래」, 「만주리(滿洲里)에서」, 「무도(舞蹈)」, 「화(花)」, 「대지(大地)의 비(悲)」, 「이 마음」, 「my dear miss」 등이다. 제목만 볼 때 「지나정(支那町)」, 「청도(靑嶋)에서」, 「지나사원(支那寺院)」, 「고향(故郷)의 가을」, 「첸 치오래」, 「만주리(滿洲里)에서」, 「화(花)」 등은 풍경화 또는 정물화, 「초상(肖像)」, 「목욕(沐浴)」, 「모자(母子)」, 「상상(想像)의 영웅(英雄)」, 「무도(舞蹈)」, 「my dear miss」 등은 인물화에 가깝다. 그러나 「수(愁)」, 「광분(狂奔)」, 「한(恨)」, 「대지(大地)의 비(悲)」, 「이 마음」 등은 제목 자체에 수심, 분노, 한, 슬픔 같은 화가의 내면심리가 배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림은 없지만 세계의 부조리함이나 답답함을 그려내려 한 이상정의 의도가 읽혀진다. 교원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렸던 비참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분노, 동포들의 모습에서 느꼈던 연민과 비애, 전망 없는 세계에 대한 내적 고뇌 등이 출품된 작품에 인상적으로 재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정(支那町)」, 「청도(靑嶋)에서」, 「지나사원(支那寺院)」, 「첸 치오래」, 「만주리(滿洲里)에서」 같은 출품작의 제목을 통해 1923년 이전 이상정이 중국을 드나들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작품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초상(肖像)」, 「목욕(沐浴)」, 「모자(母子)」 같은 그림에는 白馬會 미술전이나 白馬畫洋協會 야학부에서 영향받은 外光派나 인상파의 요소들도 일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정이 18점, 이여성이 17점을 서양화부에 출품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대구의 초창기 서양화 화단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상정은 연이어 1923년 12월 미술연구소 碧瞳社를 창설한다. 벽동사의 ‘碧瞳’은 ‘푸른 눈동자’란 뜻이지만 상징적인 다른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sup>41)</sup> 매 일신보의 벽동사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고래(古來)의 예술이 여하이 발달되얏든 것은 수천년전래의 역사에 징(徵)하며 현시(現時) 경주고분에 의하여 기 정도를 죽히 추상(追想)한 바이다. 그러나 차(此)가 만근(輓近) 수백년래 점차 퇴보(退步)황잔(荒殘)함을 항상 유감으로 사(思)하든 당지(當地) 청년 유지(有志) 이상정씨는 차(此)에 감(感)한 바이 유(有)하야 대구부 서성정(西城町) 일정목(一丁目) 팔십구(八十九)번지에 벽동사(碧瞳社)를 창설하고 사원을 모집하여 미술에 대한 연구도 하며 실습도 하야 최잔한 예술을 부흥코져 사원(社員)의 제작한 회화(繪畵)로 시시(時時) 전람회를 개최하야 일반의 관람(觀覽)에 공(供)한다는데, 그 제작 과목은 의장화(意匠畵), 초상화(肖像畵), 도안화(圖案畵), 간판화(看板畵), 유화(油畵), 광고화(廣告畵) 등의 각종(各種)이오. 현재 사원의 씨명(氏名)은 이상정(李相定), 황윤수(黃允守), 상계도(尙繼道), 박명조(朴命祚), 이여성(李如星), 정유탉(鄭裕澤)의 육씨(六氏)인데 기(其) 취지서 급(及)와 기(其) 규칙은 좌(左)와 여(如)하다더라.(대구)

#### 취지서(趣旨書)

천(天)의 성지(星地)의 화인(花人)의 정(情)은 우주의 삼보(三寶)이라. 애(愛)에 사(死)함도 미(美)이오 주의(主義)에 애(殮)함도 미(美)이며 춘행추안(春鶯秋雁)과 화조월석(花朝月夕)이 미(美) 안임이 무(無)하나니 일폭(一幅)의 화(畵), 일기(一其)의 각(刻)은 만인이 조망(眺望)하며 일곡(一曲)의 수(水) 일진(一陳)의 풍(風)은 유의자(有意者)면 공청(共聽)할 것이어날 모순(矛盾)과 악착(齷齪)이 교침

41) 이인숙, 앞의 논문, 331쪽에서 ‘벽동’에 담긴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벽동사의 벽동은 ‘푸른 눈동자’이다. 말 그대로 검은 색이나 갈색이 아닌 푸른 눈을 지닌 벽안의 비아시야계 외국인을 뜻하기도 하고, 고전 문헌에서는 세속에 물 들지 않은 초탈한 인물의 시원한 눈빛으로 비유하기도 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 또는 신선의 용모를 묘사할 때 그 눈을 벽동이라 한다. 나이 들어도 노쇠하지 않은 모습을 동안벽동(童顏碧瞳)이라고 했다. 이상정은 미를 보는 순수하고 색다른 눈, 세상의 눈을 뛰어넘는 예술에 대한 시선을 ‘벽동’이라는 이름에 담았다.”

(交侵)하야 난만(爛漫)한 천진(天真)은 물질에 미(迷)하고 이지(理智)의 명경(明鏡)은 찬영(鑢營)에 담(曇)하여서 인간의 왕양(汪洋)한 미(美)의 추구성(追求性)을 소실(消失)하야가도. 회(噫)라 우리의 역사를 회고하면 탄금(彈琴)의 묘지(妙指)가 즐비(櫛比)하였으나 종기(種期)가 기몰(己沒)에 아아(娥娥)의 곡(曲)을 양양(洋洋)으로 오청(誤聽)하는 자(者)뿐임으로 애석(愛惜)키도 라려(羅麗) 양조(兩朝)의 찬란한 예술은 심산궁곡(深山窮谷)에서 초목(草木)의 비(悲)만 공이(空胎)하고 황옥패채(荒屋敗砌)에서 고토(孤兎)의 혈(穴)만 구성하였으며 술거(率居)의 화(畵)와 우륵(于勒)의 금(琴)은 퇴창파벽(頽窓破壁)에서 우설(雨雪)의 쇄쇄연멸(碎碎烟滅)하고 창아슬상(唱娥膝上)에서 북야(北野)의 노(老)만 도증(徒增)하야 강산이 영성(零星)하고 하구(河丘)가 적막(寂寞)일뿐이로다. 인(人)은 활동에 생(生)함과 여(如)히 정사(靜思)에도 생(生)하며 현재에 생(生)함과 여(如)히 이상(理想)에도 생(生)하나니 우리는 이상(理想)의 동경(憧憬)으로 미술(美術)의 낙원을 건설키 위하여 자(玆)에 미술에 대하여 호상(互相) 연구도 하며 실습도 하기 위하여 사원(社員)을 모집하야 각종 회도(繪圖)를 연구 제작코저 하노라(이하 략)

#### 규칙

1. 본사는 미술연구로써 목적함
  2. 본사는 시기(時機)를 종(從)하야 전람회를 개최함
  3. 본사 사원은 전문적 기술이 유(有)한 자(者)로 함
  4. 본 사원은 제작품 혹 참고품을 선정하야 본사에 보관함이 가(可)함
  5. 본 사원은 매월 일차식(一次式) 모집함
  6. 본 사원은 매월 회비 일원식(一圓式) 변출(辨出)하야 경비에 충용(充用)함
- 세칙은 집회시마다 임시 평정(評定)함<sup>42)</sup>

이는 이상정의 벽동사 창설의 경위, 취지서와 그 규칙을 말한 것이다. 대구미술전람회 출품이 서양화가로서의 이상정의 기량을 보여준 것이었다면, 미술연구소라 할 수 있는 벽동사 창설은 미술에 대한 연구, 회화 실습, 전람회 개최 같은 이상정이 가진 예술행정에 대한 실천력을 보여준 것이었다. 李相定, 黃允守, 尙繼道, 朴命祚, 李如星, 鄭裕澤 같은 참가자의 면면과 意匠畵, 肖像畵, 圖案畵, 看板畵, 油畵, 廣告畵 같은 제작 과목을 보면 주로 서양화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벽동사는

42) 「대구 벽동사(碧瞳社) 창립」, 매일신보, 1923. 12. 25.

그들이 의도했던 미술 연구의 결과물이나 전람회 개최의 소식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벽동사가 이후 대구 서양화의 발전에 자극과 영향을 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한편 대구소년회 주최 동아일보 대구지국 후원으로 ‘대구아동자유화전람회’가 1924년 6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조양회관 2층에서 개최되었다. 유년부(5세~12세)와 소년부(13세~17세)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은 “각교(各校) 선생중으로 徐東辰, 李相完, 崔允秀, 羅知綱 등 사씨(四氏)로 정하였다”<sup>43)</sup>고 한다. 李相完은 李相定の 오식(誤植)으로 볼 수 있다. 초창기 대구지역 미술 관련 인사로 李相完이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또 벽동사를 이끌었던 이상정이 아동 미술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21년 서양화 개인전람회 개최, 1923년 11월 대구미술전람회의 서양화 18점 출품, 12월 미술연구소 벽동사의 창설은 이상정이 초창기 대구 서양화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23년 이상정의 전위적인 미술 활동 위에 ‘박명조개인전’, ‘서동진개인전’ 같은 개인전람회나 ‘영과회(零科會, 〇科會, 1927년 창립전)’나 ‘향토회(鄉土會, 1930년 창립전)’ 같은 그룹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여성에 비해 이상정의 서양화는 현재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앞으로 유작이 발굴된다면 이상정이 즐겨 사용한 색채나 화풍을 통해 서양화 도입기 지역미술의 수준 및 일본 동경의 白馬會와의 영향 관계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과회(零科會, 〇科會)에 이상정의 아우 이상화가 시가부에 참가하였다는 것 또한 특기할 만하다. 영과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은 카프계 李相春이었으며, 양화부, 동요부, 시가부로 나누어 전시가 진행되었다.<sup>44)</sup>

43) 「대구 아동의 자유전람회」, 동아일보, 1924. 6. 1.

44) 현재 남아 있는 제2회 영과회전(1928. 4. 2~5.2) 목록표에 의하면 양화부에는 서동진, 박명조, 최화수, 김용준, 배명학, 이인성, 이갑기, 이상춘, 주정환, 김성암, 김홍교 등이, 동요부에는 이원수, 최순애, 서덕출, 김여수, 방정환, 한정동, 신고송, 임동혁, 윤석중, 윤복진 등이, 시가부에는 이상화, 이원조, 남만희가 출품했다. 김태곤, 「조선 향토색 논쟁과 대구 향토회」, 『때와 땅』, 대구미술관, 1921, 351쪽 재인용.

### 3. 心境을 의탁한 시조 창작

시조시인으로서 이상정의 글쓰기를 문화투쟁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에는 남긴 작품이 다소 소략하다. 그러나 정치가 폐쇄된 상황에서 시작된 3·1운동 직후의 문화운동 내지 문학적 글쓰기는 정치적 행위와 등가의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조는 복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자신의 감정을 즐겨 의탁하던 갈래이다. 이상정은 『개벽』지 25호, 26호(1922. 7, 8월호)에 시조를 각각 2편씩 발표하였다.

홍진(紅塵)에 저진 몸을 녹파(綠波)에 맑이 씻고  
일엽주(一葉舟) 벗을 삼아 오호(五湖)에 누엇스니  
어저버 삼춘행락(三春行樂)이 꿈이런가 하노라

미워도 내님이요 고워도 내님이라  
치마랑(馳馬郎) 경박자(輕薄子)야 제 어찌 이를 알리  
밤거이 계명신(雞鳴晨)할 제 웅금(擁衾)코 우는 줄을<sup>45)</sup>

객창(客窓)에 비친 달은 부지럽시 드라나락  
면면(綿綿)한 춘추몽(春秋夢)은 한(恨)이 없이 오락가락  
이중(中)에 못보는 이는 님뿐인가 하노라

패강(溟江)에 배를 띄워 청류벽(清流壁) 올라갈 제  
모란봉(牡丹峯) 부벽루(浮碧樓)가 중류(中流)에 영파사(影婆娑)라  
아마도 관서승지(關西勝地)는 강상지평양(江上之平壤)인저<sup>46)</sup>

이 작품들은 가창이나 필사가 아닌 근대 인쇄매체인 『개벽』지에 발표된 현대시조이다. 그러나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고시조의 형식과 발상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 시조 4편은 각각 인생무상, 님과

45) 이상정, 「시조」, 『개벽』 25호, 1922. 7, 145쪽.

46) 이상정, 「시조」, 『개벽』 26호, 1922. 8, 36쪽.

의 이별에 대한 아픔, 달밤의 사무치는 님에 대한 그리움, 勝地의 경물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다. 문제는 이상정이 시조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최초의 근대창작시조집인 최남선의 『백팔번뇌』(1926)가 발간되기 이전에 이 시조들을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漢學과 詩書畫에 재능을 가진 이상정이 전통문학 갈래인 시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정은 『개벽』지에 시조를 발표하면서 현대시조 작가로서 그 가능성을 실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망명 후 쓴 『표박기』 곳곳에 여러 편의 창작시조를 삽입하여 시조작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도 주목해 볼 일이다. 창작주체의 감정을 시조 형식에 잘 담아낸 작품으로 「남대문역에서」를 들어볼 수 있다. 『표박기』의 첫 부분 「봉천으로」란 글의 머리에 실려있는 시조이다.

이 속에 타는 불은 저 님은 모르시고  
서운히 가는 뒷모습 애석히 눈에 박혀  
이따금 샘솟는 눈물 건잡을 줄 없애라<sup>47)</sup>

이 시조는 고시조에 흔히 등장하는 상투적 표현이나 수사에 의탁하기보다 화자의 솟구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流路’란 W. Wordsworth의 낭만주의 문학관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 시는 이별이란 상황 앞에 처한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남대문역에서 님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적 화자는 고국을 떠나는 이상정 자신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시조가 중국 망명길에 쓰여진 작품이라면 님은 부모 친지나 고국산천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驛頭는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 역두에서의 이별은 더 이상 만남이 기약되지 않는 이별이다. 그러하기에 화자의 슬픔은 건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고국(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표박’

47) 이상정, 「남대문역에서」, 『표박기』, 이상규 역주,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1923, 23쪽.



의 신세임을 화자는 고백하고 있다.

#### IV. 용진단 결성과 사회투쟁

이상정은 1920년부터 청년활동에 가담하였는데, 대구청년회의 참가도 그중의 하나이다. 대구청년회는 “풍기를 개선하고 문화를 촉진코저 하는 취지로 조직”<sup>48)</sup>된 단체로, 文士劇, 활동사진음악대회, 강연회 등의 계몽 활동,<sup>49)</sup> 축구, 야구대회 같은 체육행사 등을 통해 대구청년들의 ‘지식교환, 親和敦睦’<sup>50)</sup>을 도모하였다. 이상정은 대구청년회에 200원을 기부, 기부자 명단에 두 번째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51)</sup>

이상정이 사회주의 운동 단체 勇進團을 창단한 해가 1925년인데, 이상화가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개벽』 57호, 1925.3.), 「구루마꾼」, 「옛장수」, 「거러지」(『개벽』 60호, 1925. 6) 같은 신경향파 시를 쓰던 시기가 또한 1925년이다. 이 해는 형제가 모두 사회주의 쪽으로 관심을 돌리던 때이다. 이상정이 1925년 벽두까지 벽동사, 용진단 등의 활동을 한 흔적들이 국내에 남아 있기에 이상정이 중국으로 망명한 해는 1923년<sup>52)</sup>이 아니고 1925년이다. 1925년 신년 초에 결성된 용진단은 이상정이 주도한 사회주의 성향의 청년운동 단체이다. 이상정을 위원장으로 한 용진단이 결성된 것은 1925년 1월 5일이다. 용진단 창단과 관련된 1925년 초의 신문 기사를 보기로 하자.

신년 벽두(劈頭) 원월원일(元月元日)에 대구에서는 새로운 단체가 발기되었는데, 단명(團名)은 용진단이라 하고 단(團)의 목적은 단원간 단결, 부조, 옹호, 친목으로 하며, 사무를 분장키 위하여 인사부(人事部), 지육부(智育部), 사교부(社交

48) 「대구청년회 소식」, 매일신보, 1920. 5. 22.

49) 「활동음악강연-대구청년회활동 지난 19일부터」, 매일신보, 1922. 6. 21.

50) 「대구청년회 좌담회」, 매일신보, 1924. 9. 21.

51) 「대구청년회 소식」, 매일신보, 1920. 5. 22.

52) 「장군의 약력」, 이상정장군 유고, 『중국유기』, 청구출판사, 1950.

部), 사업부(事業部), 방범부(防犯部)의 오부(五部)를 설(設)하고 각부(各部)에 위원(委員) 삼인식(三人式) 치(置)하며, 총 집행위원 15인중에서 위원장 1인을 선택하여 위원장이 총무까지 겸하게 되고 정식 위원 선거는 래오일(來五日) 발회식겸 총회(發會式兼總會)에서 행한다 하며 선언과 강령은 여좌(如左)하다고

· 선언

수양(修養)의 실력이 없으면 행진(行進)의 실각(失脚)이 됨은 자연(自然)의 추세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고 무엇보다도 수양해야 행진코저 한다.

세계는 무산자(無產者)의 활무대(活舞臺)로 되었다. 무산계급(無產階級)의 처지에 입(立)한 우리여, 전투의 준비를 하자! 전선상(前線上)에서는 우리를 기다린다. 다같이 함성(喊聲)을 치며 각일각(刻一刻) 보일보(步一步)로 악수하고 저 앞에 보이는 서광(曙光)의 전선(前線)으로

· 강령

- 一. 오인(吾人)은 각자의 역(力)에 의하여 절대(絶對)로 수양하고 자아의 인격을 존중하여 최고의 완성을 기(期)함
- 一. 오인(吾人)은 합리적 경제조직의 출현과 사회적 자유활동의 획득과 계급적 절대 해방의 완성을 기함
- 一. 오인(吾人)은 맹목적(盲目的) 지위에서 신문화의 건설과 비리적(非理的) 계단에서 신생활(新生活)의 안정을 기함
- 一. 오인(吾人)은 사상단체와 실제 운동단체에 대하여 전심(專心)으로 절대 옹호(擁護)를 기함<sup>53)</sup>

대구에서 용진단(勇進團)이 조직된다 함은 기보(既報)와 같거니와 지난 5일 하오 7시반부터 9시반까지에 창단식(創團式) 겸 발행식(發行式)을 거행하였다는데, 단원 40여명과 그 외 수백명의 인사가 회합(會合)하여 이상정(李相定)군의 사회로 식사(式辭)를 간단히 하고 안달득(安達得)군의 취지 설명과 규칙 제정이 있었고 위원 선거와 내빈 축사로 정운해(鄭雲海), 최원택(崔元澤), 김영기(金永基), 신재모(申宰模) 제씨(諸氏)의 간단한 축사가 끝난 후 개조소년단(改造少年團)과 연맹식(聯盟式)이 있었고, 용진단 위원장 이상정(李相定), 개조소년단장 서영복(徐永福) 양군(兩君)이 악수하는 동시에 단원은 서로 박수로 환영하고 폐회(閉會)하였다 한다.<sup>54)</sup>

53) 「용진단(勇進團) 새해의 새 조직(組織)」, 동아일보, 1925. 1. 4. 「대구의 용진단(勇進團) 선언 급 강령」이란 제목의 매일신보 기사(1925. 1. 6.)도 용진단 창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54) 「용진단창립식(勇進團創立式)」, 개조소년단(改造少年團)과 연맹, 시대일보, 1925.

대구에서 용진단(勇進團)이 새로 조직되야 지난 오일(五日) 오후 한 시에 장엄한 발회식이 있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어니와 당일에는 각부 위원을 선정하여 부서를 정하야 가지고 착착 실행 중이라는데 위원의 씨명은 다음과 같더라(대구)

◇ 집행위원

위원장 이상정(李相定), 사업부 서상욱(徐相郁), 김대산(金大山), 상삼식(尙三植), 인사부(人事部) 최창한(崔昌韓), 김민동(金民同), 이인수(李寅洙), 사교부(社交部) 최익조(崔翼朝), 이성학(李聖學), 안달득(安達得), 지육부(智育部) 박두피, 박중환(朴仲煥), 방범부(防犯部) 김한주(金漢周), 정성득(鄭成得), 이준우(李準雨), 한인수(韓寅洙), 광용수(郭龍洙), 서기(書記) 백득완(白得完), 이유재(李柳載)<sup>55)</sup>

위의 세 기사는 용진단 창단과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다. ‘무산계급의 처지에 입(立)한 우리여! 전투의 준비를 하자’, ‘전선상(前線上)에서는 우리를 기다린다.’는 선언이나 강령에 나오는 ‘계급적 절대 해방의 완성’ 등의 문구는 용진단이 사회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청년운동 단체임을 말해준다.

용진단은 시작 초기부터 경북지역의 각 단체 간 “암투의 문제를 해결”<sup>56)</sup>하자고 통고문을 발행하는 등 분망히 움직였다. 그러나 1925년 3월 14일 철성단원 십수명이 용진단원 徐相郁군을 집단 폭행하는 등<sup>57)</sup> 경북지역에서는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단체들 간의 반목이 심하였다.<sup>58)</sup> 1925년을 전후하여 사회주의 운동은 서울청년회, 화요회·북풍회 간의 세력 다툼으로 그 갈등과 대립이 극에 달하였다. 서울청년회와 반목관계에 놓이기는 화요회와 북풍회가 같았다. 동경 제일유학생의 사회주의 운동 단체가 북성회이며, 이들이 경성에 낸 국내 본부가 북풍회

1. 8.

55) 「용진단(勇進團)의 부서(部署), 위원장은 리상당씨», 조선일보 1925. 1. 10.

56) 「용진당 위원회», 시대일보, 1925. 1. 12.

57) 「대구용진당총회», 매일신보, 1925. 3. 18.

58)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북풍회와 서울청년회간의 대립이 북풍회 계열의 용진단과 서울청년회 계열의 철성단의 폭력 대결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사회주의운동»,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2001, 74쪽 참고.

였다. 북풍회(김약수, 김종범, 마명, 정운해, 남정철, 서정희, 박창한, 박세희, 신용기, 송봉우, 이호 등)는 화유회와 대립하면서 노선투쟁을 벌였으나 조선공산당 창당 과정에서 화유회에 그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서로 대립하기도 했다. 용진단이 북풍회와 관련 없음을 용진단원 서상욱이 밝히기도 하였지만<sup>59)</sup> 용진단 창단식에 북풍회의 鄭雲海가 내빈으로 참석한 사실,<sup>60)</sup> 北星會에 이여성이 가담한 점 등은 그 관련성에 나름의 신빙성을 보여준다. 앞서 기술한 1923년 11월 12일에서 1월 17까지 열린 대구미술전람회에 정운해, 이여성, 이상정이 주최 또는 출품자로 함께 관여하였다는 것은<sup>61)</sup> 이들 사이의 친교가 깊었음을 보여준다. 대구지역 사회주의 단체인 대구청년동맹, 철성단, 북부청년회 등은 용진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러시아혁명기념일 기념대회를 갖기도 하였다.<sup>62)</sup> 용진단은 1925년 후반에 접어들면 새로운 진용을 꾸리고 강령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63)</sup>

1925년 1월 5일 용진단 창단식 겸 발회식에서 이상정은 직접 사회를 보고 위원장으로 추대된다. 이는 용진단 창단에 이상정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후 용진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여러 관련 기사에 위원장인 이상정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타 사항으로 京城에서 赤旗 사건으로 8개월 복역중인 申哲洙씨를 위하여 동정책을 강구할 事”<sup>64)</sup>를 결정한 1925년 7월 5일 임시총회에서도 임시의장으로 徐相郁씨가 선정된다. 이것은 이상정이 더 이상 대구 또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1925년 4월 일어난 赤旗 사건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적기 사건이란 1925년 4월

59) 「사실 와전으로 누명 쓴 대구 용진단, 용진단과 북풍회는 관계 없다」, 매일신보, 1925. 4. 16.

60) 「용진단창립식(勇進團創立式), 개조소년단(改造少年團)과 연맹」, 시대일보, 1925. 1. 8.

61) 「대구미술전람 공제회관에 개최」 동아일보 1923. 11. 12.

62) 「대구 3단체 혁명기념 준비」, 시대일보, 1925. 11. 3.

63) 「용진단 신진용(新陣容) 강령(綱領) 발표」, 시대일보, 1925. 11. 3.

64) 「용진단 총회 회원정리와 기타를 결정」, 시대일보 1925. 7. 9.

20일 火曜會가 개최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가 대회 몇 시간을 앞두고 日警의 집회금지로 대회가 무산되자 시위대 200여명이 종로에서 赤旗를 흔들며 ‘전조선민중운동자 대회 만세’, ‘무산자 만세’를 외치며 행진한 사건이다. 이때 대구에서 올라간 용진단 단원 신철수가 검거되었다. 이로 인해 日警의 검거선봉이 용진단 지도부까지 미치자 이상정이 중국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정은 국내에서 미술연구소 벽동사 창립(1923)에서 사회주의 운동 단체 용진단 창단(1925)까지 나아갔다. 1925년 이상정은 이제 문화를 넘어서 사회투쟁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은 “근대적 교육과 서구의 자유주의를 유난히 강조”<sup>65)</sup>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칫하면 일본의 지배를 수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정이 사회투쟁으로 나아간 것은 점진적 형태의 문화투쟁만으로는 더 이상 식민지 체제의 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1925년 5월경 중국으로 망명”<sup>66)</sup>했다는 사실은 교원으로서, 서양화가로서, 시조시인으로서 이상정이 더 이상 국내에 설 입지가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 서양화가, 시조시인으로 생을 보내기에는 이상정의 호방한 자유주의적 기질<sup>67)</sup>과 나라사랑의 속내가 그를 가만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문학, 미술 등을 통해 문화투쟁의 전위에 서고자 했던 이상정은 국내에서 용진단이란 사회주의 운동 단체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제 나아갈 곳은 국외, 즉 무장투쟁이 가능한 중국이란 장소뿐이었다.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가 항일투쟁의 전선에 서는 것, 이것이 이상정이 감당할 이후의 삶이었다. 못다한 문화투쟁(교육, 문학, 미술)은 무장투쟁의 와중에 틈틈이 이룩하는 수밖에 없었다. 기록문학에 가까운 『표박기』와 전각 작품집인 『晴嵐印譜』, 『聽琴山

65) M.로빈슨, 김민환 역,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 197쪽.

66) 최기영, 「이상정(1987-1947)의 재종독립운동」, 『역사학보』 200, 2008. 12. 353쪽.

67) 소남 이일우는 ‘제령 7호’ 위반 사건과 관련된 일경(日警)의 신문(訊問)에서 이상정의 성격을 ‘방탕무뢰’로 표현한 바 있다. 이 표현은 일경의 신문 중이라는 상황을 참작하여 해독해야 할 것이다. 「증인 이일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 국사편찬위원회, 1988, 44쪽.

房印苑』, 『聽琴山房金石稿』 등은 항일전선의 와중에서 성취한 결과물이었다.

## V. 맺음말

이상정은 문화투쟁과 무장투쟁을 넘나든 특이한 경력을 가진 독립운동가이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 대한 접근은 문학, 미술, 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정은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 일본, 조선, 중국 등을 오가며 표박의 삶을 살았다. 중국 망명 전이든 후든 그는 억압과 구속에 맞서 싸운 자유인이었다. 자유의 정신은 중국망명 전에는 교육과 문학과 미술을 통한 문화투쟁으로, 중국망명 후에는 항일전선의 전위를 담당하는 무장투쟁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새로 발굴된 몇몇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망명 전 이상정의 삶을 복원하고 문화투쟁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 유학시절의 행적과 귀국 후 전전한 학교들을 새로 발굴된 그의 자필이력서를 바탕으로 상당 부분 복원하였다. 이상정은 유년시절에는 백부 이일우가 세운 우현서루나 家内の 사숙에서 漢學 및 詩書畵를 익혔고, 일본 동경 유학을 통해 미술, 역사, 지리 등 신학문을 접했다. 소남 이일우 家와 일본 동경 유학의 과정에서 획득된 문화자본과 상징자본은 이후 이상정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본고는 일본 동경 유학 시절 國學院大學과 白馬洋畫協會 夜學部 수학이란 학력과 1910년대 동경미술학교를 중심으로 한 미술풍토와 조선인 유학생들의 미술 동향을 주목함으로써 귀국 후 도화교사 내지 서양화가로서의 이상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밝혀내었다. 또 대구의 계성학교, 영천 은혜사 지방학림,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광성고등보통학교 등에서 그가 지리, 역사, 도화 교원을 한 사실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정지었다.

또한 문화적 민족주의자의 관점에서 이상정의 중국망명 전 삶을 교육,

미술, 문학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교육을 통해서만 민족계몽운동에 투신하였고, 미술 분야의 경우는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로 개인전 출품이나 미술연구소 ‘벽동사’의 창설로 나타났다. 시조 창작이나 수필적 글쓰기로 나타난 문학작품은 자신의 삶의 행로와 깊은 연관을 맺은 것이었다.

교원, 서양화가, 시조시인으로 점진적 문화투쟁의 선상에 있던 이상정은 1925년 초부터 사회주의 청년운동 단체인 용진단의 결성을 주도하게 된다. 이는 문화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가 이제 실천적 행위자로 나서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문화를 통한 점진적 항일투쟁은 식민지하에서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지점에 독립운동가 이상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국외에서의 무장투쟁으로 연결되었다.

※ 이 논문은 2024년 08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이상정 장군 유고, 『중국유기』, 청구출판사, 1950.
- 이상정, 『표박기』, 이상규 역주, 상화기념관·이장가문화관, 2023.
- 계성50년사 편찬위원회, 『계성50년사』, 1956.
- 계성학교, 『계성학보』 5호, 1917.
-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 1988.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과 문인들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사회주의운동」,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2000.
- 김태곤, 「대구화단의 서양화 수용과 전개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4.
- 대구미술관, 『대구근대미술 때와 땅 1920s-1950s』, 2021.
- 박용찬, 「대구의 문학 장 형성과 우현서루」, 『대구경북 근대문학과 매체』, 역락, 2022, 125~152쪽.
- 신동근, 「청남이상정장군고」, 『승남이중회교수 회갑기념수필및학술논문선집』, 1979, 12~24쪽.
- 신채호, 『개정판 단재신채호전집』, 형설출판사, 1977.
- 오산학원 편, 『오산백년사 1907-2007』, 2007.
- 이상규, 『국민혁명군 이상정의 북만주 기행』, 민속원, 2020.
- 이상규, 『이상정과 이여성』, 민속원, 2021.
- 이인숙, 「서양화가이자 전각가인 미술가 청남 이상정 연구」, 『영남학』 83, 2022, 317~347쪽.
- 이중희, 『대구미술이 한국미술이다』, 동아문화사, 2019.
- 임창섭, 「한국근대미술의 인상과 도입과정과 아카데미즘 형성에 관하여」, 『조형예술학연구』 9, 한국조형예술학회, 2006. 6, 89~115쪽.
- 조은정, 『춘곡 고회동』, 컬처박스, 2015.
- 최기영, 「이상정(1897-1947)의 재중(在中) 독립운동」, 『역사학보』 200, 2008, 345~370쪽.



최 열, 『개정판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열화당, 2015.

홍선표, 『한국근대미술사』, 시공사, 2009.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1998.

M.로빈슨, 김민환 역,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 1990.

大野郁彦, 「일본 근대미술과 동경미술학교」, 『월간미술』, 1989. 9, 64~70쪽.

岩崎吉一 · 原田 實 편저, 강덕희 역, 『일본근대회화사』, 예경, 1998.

## Life and Cultural Struggle of Lee Sang-jeong Before Exile in China

Park, Yong-chan

Lee Sang-jeong is an independence activist with a unique career that has crossed cultural and armed struggles. Nevertheless, an approach to his life has not been properly dealt with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art, and independence movements. Lee Sang-jeong was born in Daegu and lived a hard life while drifting off Japan, Korea, and China all his life. Whether before or after exile in China, he was a free man fighting against oppression and restraint. The spirit of freedom appeared as a cultural struggle through education, literature, and art before Chinese exile, and as an armed struggle responsible for the advancement of the anti-Japanese front after Chinese exile. This paper attempted to restore Lee Sang-jeong's first half life, focusing on newly discovered data. Lee Sang-jeong, who learned poetry, writing, painting(詩書畫) and Chinese classics(漢學) while growing up in the family of his uncle, Sonam(小南), Lee Il-woo(李一雨), gained knowledge of Western painting, history, and geography through studying in Japan. The cultural capital and symbolic capital acquired in this process later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Lee Sang-jeong's life. This paper attempted to organize Lee Sang-jeong's first half life, his education, art, and literary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ultural nationalist. Devotion in national enlightenment through education was the main theme of his first half life.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was shown to be the creation of Sijo(時調) or essay writing, and the

interest in Western painting was shown to be the submit of individual exhibitions or the creation of the art research institute 'Byeokdongsa (碧瞳社)'. On the other hand, Lee Sang-jung, who realized the limitations of cultural nationalism, led the foundation of the socialist youth organization, Yongjindan(勇進團) in 1925, and defected to China. This was because he realized that the cultural struggle in Korea had reached its limit and could not go any further. Independence activist Lee Sang-jung existed at the point where he wanted to overcome the cultural struggle, which was an armed struggle abroad.

**keywords :**

Lee Sang-jeong, cultural struggle, armed struggle, cultural nationalism,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movement, a Western painter, love for one's countrymen, Sijo, socialist youth movement, fighter for independence

